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夏期衛生에 對하야

一

人間의 健康은 自然、人爲、社會環境의 三者에 依하야 左右되는것이다。아무리 自然的條件이 健康에 適合하다고할지라도 健康에 對한 各個人의 努力과 社會的協力이 이에 伴行치안호면 個人의 健康은 社會保健에도 莫大한 妨害를 誘致하게되는 다。特히 夏節은 氣候關係로 精神上 緊張과 生理的機能이 弛緩되기 쉬움으로 衛生에 格別留意하지안호면 疾病에 걸리기쉬운 時節이다。試하야 昭和十年度 傳染病患者의 月別統計를 보면 一月의 傳染病患者 八百四十三名、四月의 一千三百五十四名、十月의 一千七百二十二名에 對하야 夏節의 中間인 七月의 傳染病患者는 二千〇七九名의 多數에 達한 一事로도 이때가얼마나疾病에 걸리기쉽고 따라 保健上注意를 要할 期節인가를 可히헤아릴수잇다。

二

夏節이 아무리 疾病에 걸리기쉬운 期節이라할지라도 現代醫學에는 이에對한 防止策이 거의 完全하다할만치 究明되여잇다 勿論 各種疾病은 그種類에따라 이를 未然에 防止하는 方法이各其 다를것이다。그러나 그러케 繁雜한 豫防法을 一一히 알지안드라도 그豫防에對한 몃知識만이라도 끈기잇게 實行함으로써 能히 一般疾病을 未然에防止할수 잇슬줄로 밋는다。첫재로 病魔가 人體에 侵入하는것은 흔히 身體가 疲勞하거나 또는 虛弱한때이다。그것은마치家人不在中에 盜賊이 侵入하는 理致와 가튼것이다。그러므로 各自는 日常健康에 留意하야 特히 暴飮暴食과 晩寢晩起를삼가고 食事、運動、休息을 節調잇게하야 身體의 抵抗力을 養成하기에 努力할것이다。

三

무릇 保健에는 各個人의 注意와努力이 必要한것이지만 이웃에 不攝生者를 두고서는 到底히 所期의 成果를 擧하지못할것이다。이에는 반드시 一般社會全體의 共同協心을 必要하게된다。社會保健이 各個人의保健에 依存하는것과가티 反對로各個人의保健도 社會一般의 保健에依存하는것이 今日과가티 社會生活이 複雜化함에따라 各人의健否는 一個人의 禍福에 그치지안코 널리 一般公衆의 利害에關係되는바가 多大한 現代에잇서서는 더욱 그러하다。先進諸國이 每年彪大한 豫算을 計上하야 國民保健과 衛生施設擴充에 努力하는것이나 또는 保健省까지 新設하야 衛生行政의 機構와 機能을 擴充한 모든 消息을 말함이다 不幸히 朝鮮各都市에는 아직도 衛生施設이 完備되지 못한것은 一大遺憾事라 아니할수업다 京城과가튼 大都市에 잇서서는 病菌의巢窟이라고할만한 下水道가 良好한것으로 보드라도 얼마나 衛生施設이 不充分한가를 可히헤아릴수잇다 더욱 醫療機關도醫師一人이 六千生靈을 擔當하는現狀이니 이얼마나 寒心한일이냐? 特히 傳染病 流行期節인夏期에 臨하야 一般의 衛生觀念을 促하는同時에 當局에對하야도 이에對한 施設擴充을 要望하는바이다。

蔣介石前線部隊에 第廿九軍援助指令!
馮玉祥、何應欽、程潛等 首腦部와協議한結果

【南京廿九日發同盟】蔣介石은 二十九日、前日에 繼續하야 아침부터 軍官學校內官邸에 馮玉祥、何應欽、程潛等首腦部를招致하고 時局對策을 協議中인데 戰局의進展에 伴하야 中央軍北上部隊及 山西綏遠軍으로하야금 第二十九軍을 援助케하기로 決定하고 이뜻을 前線部隊에 指令하엿다한다 그리고 此等 第二十九軍과 共同作戰命令을 바든中央軍에는 襟章을 第二十九軍의것으로 變裝하라는 密令이나렷다한다

中國은最後竿頭에 外交部要人時局談發表

【南京廿九日發同盟】外交部某要人은 三十日午前、昨日의 蔣介石談話를 中心으로 左와如한 時局談을 發表하엿다
中國은 十九日에 締結된 停戰協定을 默認하려고 最大限度의 讓步的態度를 示하여왓스나 그後 戰局이 進展되여 天津에 攻擊을 敢行하여 中國民의 損害는 거이참을수 업게되엿다 斯如하야 中國은 마침내 最後의竿頭에 서게되엿다 只今 時局의 根本的一大轉換이어서 繼續的으로日本軍이 南下하며 進擊을 實行하야 中央軍과 決戰을 開始하게되면 全面的破局은 必然的으로誘發될것이다 行政院各部에는 內外로부터 激勵電報가 곳치어서 到着하고잇다

太沽完全占領

【天津三十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 三十日午後三時發表
一、塘沽部隊는 繼續하야 太沽의敵을 攻擊하야 午後一時半 完全히 太沽를 占領하엿다
二、今朝九時頃 溝將大尉以下若干의步兵이 飛機에올라 支那海關監視船을 捕獲하야 目下 棧橋에 繫留하엿다

天津支那市街 卅日도繼續爆擊!

【天津三十日發同盟】駐屯軍司令部午後四時發表
一、今朝來 天津防衛部隊는 特別第二 第三의 掃蕩을 實施中으로 伊太利租界로부터東站地方地區間의 掃蕩을 終了하엿다
二、日本租界에 隣接한 支那市街에는 現在에이르러서도 아직 兇惡한 支那兵이 多數이서 厲厲히 我租界를 射擊하고잇스므로 我飛行機는 午後三時부터 그巢窟인 建物을爆擊하고 地上으로부터도 砲兵으로하여금 協力케하엿다

米國政府態度 嚴重不干涉政策

【華府二十九日發 加藤同盟特派員】米國政府는 天津地方의日支兵衝突에 大端히 憂慮하고 詳報를 기달리고잇든바 同地方米國居留民은 全部無事하다는確報가 到着하엿스므로 暫時安心한態度이다 그런데米國政府는 米國居留民의安全이 가장 큰關心事로서 그한行動을取하지안코 嚴重히不干涉政策을固執하고잇슬터이오 他國과共同動作을取하면 헛되히不必要 保障만滿足하다면 오히려形勢를惡化시킬念慮가잇다하고 蔣介石이 너무 지나친行動을取하지안호면 紛爭은 局地化할것이라 고하고 日本政府의 立場을米國官憲에서도 漸次諒解되엿다하다

政府、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北支事變의 進展에卽應할 對策樹立을 爲하야 三十日午後 衆議院豫算總會開會中 院內大臣室에 近衛首相을 中心으로 廣田外相 賀屋藏相 杉山陸相 米內海相 馬場內相等參集 杉山陸相으로부터 二十九日부터 三十日午前까지의 日支兩軍戰鬪經過를 詳細說明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近衛首相參內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三十日 午後四時二十分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 政府의北支情勢對處方針을 委曲奏上、諸種 御下問에 奉答 退下하엿다

天皇陛下께서 時局을御軫念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의 參內에對하야 政府는 三十日 午後七時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天皇陛下께압서는 時局을 御軫念하압시사 總理大臣을 御召命하압시엿는데 總理大臣은 委曲奏上하고 退下하엿다

衆議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三十日 衆議院本會議는 午後一時十一分開會
一、産金法案
一、金準備評價法案
一、金資金特別會計法案
一、日本銀行金買入法廢止에關한法律案
一、朝鮮銀行法中改正法律案
一、臺灣銀行法中改正法律案
一、外國爲替管理法中改正法律案
(以上政府提出)
第七件을 上程하야 賀屋藏相으로부터 提案理由의 說明이잇섯고 宮澤胤勇氏(政友) 金綿分을 七百五十미리로 부터 二百九十미리에評價를고친 根據及 評價換의 利益은 어느程度인가 또 今後의 金政策은如何 太田大藏政務次官 平價切下에는 相當한 條件이必要하므로 現狀에鑑하야 暫定的措置를取한것이다 平價切下는 時期尙早라思한다 二百九十미리는 倫敦金塊時勢로 換算하야 決定하엿다 評價換結果의 利益은 總計 約七億四千六百萬圓이다 金現送에依하야 金現送을 行하야 國際收支의 適合을圖한다 이것이 當面한 金政策이다 武田德三郞氏(政友) 六大産金會社中心의 産金助成會社를 設立하려는 計劃이잇는가 新評價價格과 買入價格과의 사이에 一匁에對하야 一圓程度의差를 만드른것은 何故인가 爲替平衡資金을 設置한理由如何 太田大藏政務次官 現在의買上價格은 倫敦時勢에對하야 二分七厘減으로 되여잇다 爲替平衡資金制度는 我國의 國情이英米와다름으로 設置할意向은업다 木暮商工政務次官 六大會社의産金助成設置에對하야 政府는아직關興하지안엇다 佐竹晴己氏(社大) 金買入價格引上及 評價換은物價의 基準인 金評價引上을 法定하는것이다 換言하면 物價騰貴政策은아닌가 太田大藏政務次官 今回評價換은 갑작이 高騰하여 진것은아닌가 이에依하야 特히物價騰貴를 助長한다고는 생각되지안는다 고答하고 二十七名의特別委員에 附託하고 二時二十分散會하엿다

各派交涉會

【東京電話同盟】衆議院各派交涉會는 三十日午前十一時十分開會 小山議長으로부터 政府가 北支事變때문에 各閣議를開할必要上 閣僚가 會議中 退席할터이니 미리 諒解를求한다는 申請이잇섯다는旨의 報告가잇섯는데 이를諒承하고
一、政府側의 希望에應하야 協力의實을 擧하기爲하야 同一

議會의拘束업시 四閣僚退席自由
北支事變緊急對策

【東京電話同盟】北支情勢는 急激惡化하야 前途는 豫斷을不許하는 現狀에鑑하야 政府는 近衛首相을 爲始하야 杉山陸相 米內海相 廣田外相의 關係閣僚는 何時如何한 事態가發生하더라도 卽時에 對應하야 適正한 緊急處置를 取할수잇도록 關係閣僚의 議會出席에對하야 從來의習慣에依하야 拘束되는것을 避하기바란다고 三十日風見書記官長으로부터 小山議長을通하야 衆議院에 諒解를求하여왓다 그리고 四相이 欠席又는退席할境遇에는 이에代하야 貴族院에는 馬場 有馬 大谷 衆議院에는 永井 中島各大臣이 連絡을取하야 圓滑한 議事의進行을 圖하기로되엿다 (寫眞은 首相、外相、陸相及海相)

衆議院豫算總會 (午後再開分)

【東京電話同盟】衆議院豫算總會는 三十日午後一時五十分再開 東武氏(政友) 政府는今回事變에 對하야 現地解決主義를 取하고잇는데 現地의意義如何 廣田外相 我國政府로서는 滿洲國과의各種公約에 基하야 滿洲國에接近한地域을 現地로看做한다 다시 東氏首相에對하야 事變의將來에對하야 質問하엿다 近衛首相 될수잇는대로 全面的戰爭에이르지안토록 今日에잇서서도 依然히 平和의希望을 버리지안는다 但事變의推移如何에 依하야 … 東氏 支那에 反省을 求하여도 應할 事態가아닌가 또 南京政府와의 關係에 對하야 어떠케생각하는가 外相 南京政府가 誠意잇는 反省을 하면 모르되 그러치아니하면 어느程度인지는 判然치안타 首相 모든手段을 써야한다고생각한다 東氏 今回事變에 關하야 英米其他가 中立法을 適用하지안흘터인가 外相 米國政府는 事變當初부터 獨自的態度를 取하고잇스므로 只今까지는 中立法을 適用하지 안흘模樣이다 英國도아무 態度를 取하지안는다 鈴木正吾氏(國同) 地方財政調整交付金의 恒久案을 次期議會에 提案할터인가 馬場內相 政府는 그方針은 아직 決定되지못하엿다 鈴木氏 다시 産業組合과 中小商工業者와의 相剋關係에 對하야 農相과의問答을 거듭하고 三時十四分 休憩하엿다

【東京電話同盟】衆議院豫算總會는 午後四時再開 原夫次郞氏(民政) 金準備評價法의 影響如何 賀屋藏相 金準備評價法은 形式化한것뿐이므로 經濟界는 影響이업다 原氏 選擧法 改正案은 今議會에 提出하는가 馬場內相 通常議會에 提出하려한다 原氏 蘇滿國境의 現狀은 어떤가 杉山陸相 蘇滿國境의 狀態는 依然 輕視할수업는가한다

評價換差益 七億四千餘萬圓
太田大藏次官答辯

【東京電話同盟】金準備評價換에 依한 評價差益에 對하야 太田大藏政務次官은 三十日衆議院에서 宮澤胤勇氏의 質問에對하야 左와如히 答하엿다(單位千圓)
金準備評價換에依한 評價差益

日銀	七一七、一二七
鮮銀	四、五九一
台銀	二五、一九七
合計	七四六、九一五

排日의急先鋒 大公報上海移轉

【天津三十日發同盟】排日急先鋒으로서 十數年間 北支의言論界를 獨壇할 專擅을 휘둘르든 大公報는 時代의 潮勢에 抵抗치못하고 마침내 三十日上海에移轉하기로되엿다

大連汽船支店天津 트럭數十輛略奪

【天津三十日發同盟】二十九日午前七時半頃 特別第一區(舊獨逸租界)에 잇는 大連汽船支店에保安隊長及 警察署長이와서『撤退하지안허도 조타』고 申請하여왓더니 그後 조곰잇다가 赤褐色으로옷을 입은保安隊員 約二十名이 同支店으로 달려와서 同支店長 三角武雄及 支店員을監禁하고 二十六日 入港한 同社船大連航路『長平丸』의 陸揚貨物二千餘와 貨物自動車 十數輛을 略奪하여간 事件이잇섯다

北平城內再險惡化 便衣隊橫行으로

【北平卅日發同盟】三十日朝來北平各城門은 堅固히閉鎖되며 市中에는 武器彈藥을가진 敗殘兵及解散式을行한 第三十七師의便服을 着服한者가 橫行하야 北平城內는 再次險惡한 空氣가漲溢하엿다

人事・集會

▲宋蔡道氏(總督府外務部事務官) 東京出張中 二十九日夜歸任
▲李台雨氏(前朝鮮中央日報記者) 新京滿蒙日報社入社 八月三日午後三時五分京城驛發赴任豫定
▲藤井亥一氏(朝鮮開敎總長、朝鮮別院輪番)新任人事次來社
▲野口謙吉氏(楊州警察署長)新任人事次來社
▲新海六氏(京城消防署長)新任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三十日

當限 ◆橫濱 生糸 後引◆ 先限 七九三〇
當限 ◆福井 人絹 後引◆ 先限 六九〇〇

新政權出現까지의 過渡的機關成立!
『北平治安은北平市民의손으로』
地方自治會創立總會

【北平三十日發同盟】北平各機關代表及 名士를網羅한地方自治會는 三十日 午後二時半 會長江朝宗邸에서 各委員出席下에 創立總會를擧行하엿다
自治會는『平北의治安은 北平市民의 손으로』라는 못토로 今日부터 新政權이 樹立되기까지의 過渡的機關으로서 北平城內外의 治安維持의 責任을 負하는 機關이다

新政權엔軍閥排除

【天津二十九日發同盟】天津地方의情勢는 二十九軍의 撤退를契機로 百八十度의轉回를하야 治安維持의 善後策에 關하야서는支那要人의 往來가甚하며 目下二十九軍閥을 中心으로한 張自忠一派의 舊冀察政權의 存命工作과 民間各界를 代表하는紳民組織의 治安維持會等이 對立되여잇고 張自忠은 舊冀察政權의機構를그대로 利用하야 모든工作에專念하고 民間派에 機先을制하야 軍政權을 存續할려고하는대 對하야 地方民間派는 早急히 計劃되여잇는만큼 모든點에뒤떠러지는氣味가잇서서 正式發會式도 三十一日로 延期하게되엿다 但軍閥以外의 各界는 모다 新生政權에는軍閥의 介入을絕對로 排除할려고함으로 그推移는아조注目된다

支那兵三千武裝解除

【北平三十日發同盟】三十日午後三時부터 市內旃檀寺兵營에서逃亡하다못한 支那兵三千名은 武裝解除를 當하엿다 右는 二十六日夕刻 廣安門에서 日本軍에對하야 容恕할수업는 慘虐한攻擊을行한 部隊이다 總員三千名은 槐樹營庭에 整列시키고 武器는 조곰相距한데 山積하엿다 日本側으로부터 中島中佐가 第二十九軍의 同參謀의 先導로 部隊를 綿密히 點檢한것은 午後六時이다 二十七旅는 當分間 同營庭에서 起居할터인데 今後의 處置에對하야는 日本側에서 目下考究中이다

蔣介石不承認 治安維持委員會

【南京三十日發同盟】蔣介石이 北平의 地方的解決을 排擊하는旨를 宣明한데對하야 消息通側은 北平의 治安維持委員會와 日本政府와의交涉一切를承認치안흘意味라고 解釋한다

漢口方面狀況

【東京電話同盟】三十日海軍省에 到着한 漢口方面의 狀況은 左와如하다
一、今日까지 離漢下江한 邦人은 婦女子뿐으로 그中大人三十五名 兒童四十五名合計八十名이다
一、現在의情勢로보아 事變은當地方에까지 波及되리라고 觀測되여 事變때문에 我租界로부터 支那街에 避難한 支那人은 무릇二百名에 達하나我居留民은 意外로 冷靜하야男子들은撤退에 關하야서는 特히考慮치안는模樣이다

彩津市內에凄慘狀

【天津三十日發同盟】我飛行隊는 今日도朝來市街上空을 不絶히飛翔하야 必要한個所에 爆擊을加하엿다 爆音은市中을 震撼시키는一方全市의交通 通信은昨日同樣杜絕狀態이오 市中商店은 모다門戶를닷고 日沒과함께 凄慘한 氣味가市內를 漲溢하엿다

南苑의激戰자취 敵의屍體千數百

【北平三十日發同盟】二十八日南苑激戰에서 我空軍의 正確한空襲과 砲擊으로 敵의屍體는 헤아릴수업시만허 三十日午前北平憲兵隊로부터 南苑戰場視察에赴한 憲兵의 報告에 依하면 南苑에 드러가지못하고 門까지 撤退하엿스나 그새만하여도 敵의 屍體는 千數百에達할程度로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南苑의戰鬪에서 敵이얼마나 殲滅的損害를 蒙하엿는가를 짐작할수잇다

卅日戰況(陸軍省着電)

【東京電話同盟】三十日午後四時陸軍省着電
一、天津은 今日黎明以來 戰況이 逐次平穩하여지고잇다 日本居留地와 東站과의 交通은 自由로되엿다 東站方面의 敵은 散退하기始作하야 今日午後二時頃에는 東站東方百米의山中에 集合中이다 天津飛行場及 我飛行隊에는損害는업스며 天津、塘沽間의鐵道는 今日開通되엿다 塘沽에서는 敵의 큰抵抗을밧지안코 今日午前十時 이를占據하엿다
二、北平市中에는 第百三十二師의二團及 殘存兵等이 殘存하야 再次 不穩狀態를呈하엿다
三、北苑北平北方約四粁에對하야는 朝來爆擊을 實施하엿다
四、鈴木部隊는 黃寺(北平北方一粁)附近에서 敵의一部를 掃蕩中이다
五、通州에잇는 我部隊를攻擊한것은 保安隊의 第一 第二總隊로서 我方은 兵舍에서 그攻擊을 固守한바 敵은 我爆擊에依하야 包圍를 解除하엿다
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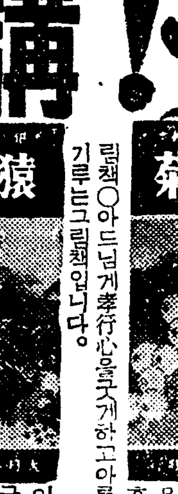
親心で作られた講談社の繪本

父兄母姉되신여러분! 貴重한子弟에게 꼭주십시요
講談社의繪本은今日本의아드님과따님들을위하야 愼重히編輯한것입니다。이것을주신다면수원히安心됩니다。
◎明郞한애기로만들고저……
◎賢明한애기로만들고저……
◎正直한애기로만들고저……
◎出世할애기로만들고저……
父母의마음으로

又々新しく四冊發賣!『講談社の繪本』お子樣大喜び!

아름답고자미잇고有益한그림책입니다 이번나온것은다음의四册 모두가一册三十五錢、送料九錢

이그림책은忠孝仁義의日本精神에빗나는 淸正의少年時代부터虎退治 地震加藤等全盛名場面으로 한그림책입니다



孝行心을굿게하고아름다운情操를 길르는그림책입니다

勸善懲惡의道를가르친것입니다 그림의훌륭함은至今까지업든猿蟹合戰입니다

이이야기는누구나다알고잇지마는이그림책에서는더자미잇게만드러서아주愉快하게읽어가는中에正義、友情을배우게됩니다 이것만이全家族이기뻐할수잇는高尙한漫畫繪本입니다

今までに出た大評判の三十冊 모두가一冊三十五錢送料一冊九錢
◎木村重成 ◎リンカーン ◎動物畫集 ◎漫畫とお話大會 ◎東郷元帥 ◎花咲爺 ◎童謠畫集 ◎漫畫と頓智 ◎豐臣秀吉 ◎浦島太郎 ◎子供知識 ◎漫畫と繪話 ◎楠木正成 ◎イソップ繪話 ◎東京見物
◎漫畫と考へ物 ◎金太郎 ◎漫畫と笑話 ◎宮本武藏 ◎牛若丸 ◎漫畫博覽會 ◎桃太郎 ◎曾我兄弟 ◎大笑漫畫集 ◎乃木大將 ◎四十七士 ◎岩見重太郎 ◎漫畫傑作集(特別版) ◎教訓名畫集(特別版八十錢) ◎乘物づくし(特別版二十五錢)
全國書店에잇슴、모두가굉장한大賣行!
發行所・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鐵道에非常時編制
運輸網全面的變更
運轉回數와客貨取扱等에大制限
八月四日부터實施

조선총독부철도국에서는 팔월사일부터 당분간 전조선철도선을통하야 렬차운전회수를 주리고 림시로 다음과가튼 변경된시간에따라 운전하야 려객과 화물의취급을 제한하기로 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삼십일오후여섯시에 철도국으로부터 아래와가티발표하엿다 이가치하야 철도운수망은 비상시편제에들어가는것이다

遊覽客、團體拒絕
一等車의連結도廢止

一、오는팔월일일부터 피서유람등의 유람할인과 단체대절등의 취급을 정지케되엿스므로 오락의 목적으로 려행하는 려객은 될수잇는대로 려행을 중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一、다만 학생할인과 금강산탐승의 개인할인는 종대대로취급하기로되엿다

一、종래 일등차를 련결하든것은 중지하기로되엿다

一、부산(釜山)신경(新京)운전하는 제일천일백칠렬차와 일천일백팔렬차 (종래의 노조미)에 탈때에는 보통급행료금을 밧기로되엿다

一、도침대차는 부산、봉천 (奉天)사이의 제일천일백일렬차와 일천일백이렬차、일천일백팔렬차、일천일백오렬차、일천일백칠렬차와 부산신경사이의 제일천일백칠렬차、일천일백팔렬차와 경성청진(淸津)사이의 제오백이렬차、오백삼렬차에만련결하기로되엿고어외다른렬차에는련결치안키로되엿다

一、식당차는부산신경사이의 제일천일백칠、일천일백팔렬차(종래의노조미이외는 련결하지안키로 되엿다

一、림시변경과렬차교령환관계로 팔월삼일부터 사일까지 렬차의 운전시간이 각금변경 될터인즉 려행자는 미리각가운정거장에 문의하는것이조켓다

釜山新京間急行一往復
區間列車運轉半減
"노조미""히까리""아까쓰끼"도업서진다
"當分間"의期間은豫測不許

어번 림시로개정된 렬차운전시간을 종래의운전시간에 비교해보면 종래에 부산(釜山)봉천(奉天)사이에는 하로에급행렬차 한번과 보통렬차세번식 래왕하고잇든것이 전부보통렬차로 운전하게되엿고 다만부산 신경(新京)사이만은 종래대로 하로에한번식(왕복간에)급행렬차를 운전하기로되여잇다 그러고 부산경성사이에 하로한번식(왕복)운전하고잇든 특급렬차『아까쓰기』도 운전을 휴지하기로되엿스며 그밧게 부산서 대구(大邱)혹은 대전(大田)사이와 경성서 대전혹은 수원(水原) 사이와 경성서 평양(平壤)혹은 신막(新幕)이나 개성(開城)사이에 래왕하든 각구간렬차는 모다 종래보다 운전회수를 반감하기로되엿다 또 경성청진(淸津)사이는종래에는 하로에 라진(羅津)방면으로가는 급행렬차 한번식(왕복)과 청진으로가는 보통렬차세번식(왕복)운전하든것을 다만 보통렬차두번식(왕복)만 운전하기로되엿다 그러고 그밧게 성진(城津)함흥(咸興)복게(福溪)원산(元山)의정부(議政府)등 각구간렬차도전부 그운전회수를 반분가량감하기로 되엿다 그래서 근거리의려행객은 아주큰 불편을 느끼게 되엿스며 원거리려행객도 차깐이 좁아서 큰 고통을 느끼게되엿다 어운전제한은 언제까지게속될는지 아직가태서는 예측하기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오는시월부터『따이야』를 대대적으로 개정실시하려든 큰계획도 현재의상태로보아서는 예정한순서대로 실시하기어려울것가태 보인다

◇臨時改定된主要幹線時間表

列車番號	1107 急行	1105	1109	1101	1103
釜山	前 七·三〇	八·〇〇	前 一一·四五	後 七·四〇	後 一一·二五
大邱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前 [illegible]
大田	後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京城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平壤	後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安東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列車番號	1108 急行	1104	1102	1110	1106
安東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平壤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京城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前 [illegible]	[illegible]
大田	後 [illegible]	後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illegible]
大邱	後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釜山	後 [illegible]	前 [illegible]	前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列車番號	501	503
京城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列車番號	502	504
淸津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手小荷物과 貨物의制限內容

오는팔월사일부터 당분간 수하물(手荷物)부속 소하물취급자전거 귀중품 신문지、잡지 (ㄴ)질것을(승인하는것에만) 소하물취급시품목(우유、어개하류(漁介類)『가마보코』등의 수소하물(手小荷物)은 취급하고 그외것은 취급치안키로되엿다 화물은 오는팔월일일부터 당분동안채소류、석유류、소금、어류、장류의용약품류、면자류、사탕、성냥、등외에 철도국에서 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고 (승인한것만취급하고 그외것은 취급하지안키로되엿다

鐵道當局者談

렬차운전시간이 림시로변경되엿기때문에 전조선철도선은통틀해서 렬차운전회수가 감소되여서 승강할때는 상당히혼잡하게될것임으로 어떠케려행객 여러분은 혼잡을완화하기에 협력하기를바란다

世專鄭保羅氏
米國에留學
齒科研究次로

세부란쓰 의학전문학교(世醫專) 치과강사로 부속병원에서 시무하고잇는 정보라(鄭保羅)씨는 어번에치과의학을 연구키위하야 미국『시카고』서북대학 연구과로 들어가기로되여 오는팔월하순에 출발케되엿다 씨는칠년전 경성치과의학전문을 우수한 성적으로졸업하고 그동안 세부란쓰의학전문학교에 시무하면서 동경일본대학치과에서 연구한바도엿는 극히우수한실력을가진 청년학도로 그전도가만히 촉망되고잇다 그런대 이번류학에는 세전치과 과장『뿌-쓰』박사의 각별한진력으로 미국에서도 극히우수한대학인 서북대학에 교섭하여 일년에일천팔백여원의 장학금을밧게된것은 조선학계를위하여 크게반가운일이다 또학비의 일부는 뿌-쓰박사가 열직부터 조선인교육을 위하여 동치과내에서 적립하여둔 연구비의 일부를보조키로 되엿는데이도 동박사의각별한 성의에의한것이다 씨는 미국에서 약일년간연구하고 구라파까지시찰하고 돌아올터이다 (사진은 정씨)

京城軍事後援會
結成式擧行
昨日、七十餘團體會合

경성군사후원회결성식장광경

경성군사후원 련맹결성식은예정대로 삼십일오후두시에 부민관에서 부내각게칠십여단체 대표자의참집으로 성대히개최하엿다 좌백(佐伯)경성부윤의 사회아래 련맹규약과 취지서와 선언문(宣言文)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십사단대표로 길전대좌(吉田大佐)의 사사(謝辭)가잇슨뒤 좌백부윤의 발성으로 엄동이 대일본군 만세를 삼창하고 천안부대 (川岸部隊)의 근향기라에대하야 이십사단사령부 도변소좌 (渡邊少佐)의 강연이잇슨뒤 오후네시에 원만히 폐회하엿다 그러고 좌백경성군사후원 련맹회장으로 부터 북지에 잇는 천안부대장에게 승전의 축전(祝電)을첫다 당일랑독한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갓다

▲宣言文 刻下 非常時局에 直面하야 我京城軍事後援聯盟은 益益愛國의 熱意를 昂揚하고 結束提携 하야 나아가서 힘을銃後의任으로 하고 蕭蕭皇軍의士氣를鼓舞振作하야 後顧의 憂가 업도록 그本分을다하기를 誓함

便所分娩은過失致死

거번이십일일 새벽세시반경 부내대도정(大島町) 이십삼번지 오백칠에서 려관을영하는 우전청미(宇田川)의 처 하즈메가 변소에서 분만한영아에 대하여는 타래인가 일산인가의 의문을 가지고잇섯스나 성대의학부해부실에서 해부하는일방 경시국주견(?見)검사지휘하에 동사경찰서 사법게에서 그판게자와 산파등을 취조해본결과 작변절흔 당시의 우전청의 자식으로 판명되엿스며 만삭되여분만한것으로 타래의 혐의도업고 과실치사로 판명되엿다

그날의北支戰線

中央軍抗戰準備
平、津에는新政權
北支明朗化工作은漸次進行
戰雲은長辛店으로

◇…천진(天津)의전투는 어십구일로써대략끗난모양이다 축전일까지에는 북지의전운은 북평(北平)을 중심으로 지나군에게막대한손해를입히어 남으로산신하되각식히엇다 그러나 이로써 천진에남어잇서 연강히 저항하고잇슴으로 이에『북지명랑화』의전적표하에 행동을활발히 전개하게된추문군으로 천진에서 다시행동을 개시할것은 당연한순서이엇다 역시 전투의위협은 공중폭격에잇섯다

◇…어날에 어쉬구일 지나군도상당히 저항하야 전투는시가전으로 맹렬히전개되엿든모양어나 공중폭격의 위력이적군에게 다시금 활동의여유를 주지아니하엿다 폭격은 지나측의 시정부(市政府)시재정국(市財政局)진포(津浦)북령(北寧)의 량철도국(鐵路局)을위시하야 지나총대본부(總隊本部)경비사령부(警備司令部)등 지나군의 근거지가되엿는곳은 남김업시 폭격을하엿고 도어외에 천진 동참(東站) 정거장 전화국 등이며 중국에서 유명한 대학인 남개대학(南開大學) 도 폭격을 당하여 지나외지시가지는 흐연이몽통하야 백도를 넘는 초열지옥의감을 천지는 버야흐로 생지옥의감을 주엇슬것은 물론이다 이리하야 폭격은 어십구일 저녁에일단중지되고 송철원(宋哲元)휘하의 이십구군의 세력은 북평、천진일대에서 완전히 퇴각된 셈이다

◇…그런데 어천진을 이제소개한바도 엇거니와 실로 동양의 큰무역항으로 구미각국이동양무역에 유력한 중심이든 그때부터 근거를 잡은곳이다 구미중요국의 조계(租界)가 모다잇서 국제도시로서의 관계가 미묘한바잇다 그런관계가 천진폭격에대하야 약간나타낫다 즉 어십구일천진의 제외국령사는 향월(香月)주둔군사령관에게 천진폭격에 대한 항의를 햇다 그러나 항의는가볍게 버터치웟다 즉 일본군으로서의 행동은 지나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것으로 일본군은 제외국을 적으로생각지도안코 도 제외국인의 생명재산에 혐위를 줄생각도업다고 언명하엿다 어런것은 일종외의교상어떠게도의 표지라고 볼것인데 이외런게하야 외국으로서는 어떠케 보고잇는가 하는 점은 들러보면 영국의 『이든』외무대신이 『영국은 일본군이 지나와 평톤을 벽돌할의도는 엇할수업다』는뜻의 경고를 발하엿다고 『런던』전보는 전하고잇음을 그여는 어러타할만한주목되는바잇은 아직뜰리지안는다 더만어십구일『런던』전보는 런던에서 지나총영영국 불란서등지의대사와 공상회 (孔祥熙)재무부장등이 모여어 영국 미국 불란서 로서아등의사국으로하여금 북지사변에공동간섭을하도록 획책중이라고전함은 그것이 멋십번관과탐라 만만히될상십지안흔일이다

◇…이런것보다 당장의문제는이십구군이 천진북평에서 총퇴각을한데대하야 남경정부 (南京政府)는 대체어떠한대책을 취한것이 나하는것인데 어십구일밤장개석(蔣介石)은 상당히비장한성명을하엿다 중앙군은 송철원의이십구군을 도우려고하엿다 도중철원에대하야 일단보정(保定)에가서자리를잡으라고 햇스나 송은이를듯지안햇다 천진북평으문화 산업상 중대한곳이나 전투상 전략상으로는 그리중요치는안타 주권을위한전투는어제부터본격적인것이다 라고하엿다 그러고 장개석의남경전보는 장개석의 중앙군은한명어 북으로동원하야 어미그일부는 장신점(長辛店)에 도달하엿다고전하야 금후의 형지의대처는 장신점일대일것으로보인다 남경정부는 중앙당은 장신점을 제일선으로하고 탁주(涿州)를제이선으로 보정(保定)을 제삼선으로하고 총사령 진성(陳誠)은 석가장(石家莊)에잇서 본격적항전을 할모양을 보이고잇다 북지사변의 명일은 여기잇는것으로보인다 과연어떠케될것인가?

◇…일방에 이십구군의 퇴각을 송철원의 기찰정권(冀察政權)이 사실상 소멸된 천진북평의금후는 어떠케될것인가 삼십일팔의 북평、천진의 전보는각기관의 대표자가 모히어 새로운 정권의수립을 목표로 지방자치위원(地方自治委員)을 조직케되엿다고한다 이기관은 종래의 군벌을제한한 지나측 유지자들로 조직된다는것으로 이것의원만한 성립이 장차북지의 명랑화를 가저오게될만큼 그진행이 약속될것으로보인다

漢拏山登攀
大成功裏完成
頂上에一夜幕營
南海의靈氣를滿喫
大自然의거룩한품속에날을밝히어
一日午前七時京城着豫定

【麗水에서本社特派員李鴻稙發電】 이십팔일 새벽동쪽하늘이 아직밝기도전인 네시경 이번길 마지막일정인 한나등산 (漢拏登山)의 대행군은 드듸여시작되엿다 일행은 추가단원과 이곳본사지국원을합한단원 오십칠명과 인부여섯일명으로 합게칠십팔명의대부대가 다섯반으로난호아 일사불란의 통제아래떠낫다 성안에서 약어십리떠려저잇는 관음사(觀音寺)까지는빼스로가서거기서부터는 대오를 정돈하야 용약산록대거로 향하엿다 소위초원지대(草原地帶)는 이곳부터 시작된다는데 어곳의명물 말과소가떼를지어 평평한언덕에서 왓다갓다 하는모양은 마치한폭의그림과도가튼 아취(雅趣)를 자아내는것이엇다 오전아홉시십분 별도한나산 국유림경계선에 발을듸려노으니 여기서 꼭대기까지는아직 이십오리、그간에 밀림지대(密林地帶)사이를 약두시간올라가면 의경어구에닷는다 여곳은 해발일천백메-타부터일천사백메-타사이에갈대가급하지안흔 경사지에나잇섯는데 오후두시경에 점심을 먹엇는데 험한산길에 시달려서 단원들의 얼굴에는 다소피로한빗치 떠돌앗다 세셔십운 세계적으로일홈이 날려잇스의 독특한식물인『철쭉』『자작나무』등 이곳저곳에 허러저엇는곳에다엇다 단원중에 식물연구가는 이들 채집에 피곤한것도 이저버리고 헌헌한것으로 헤매인다 여기서곳 왕관봉(王冠峰)에 도착되엇는데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언제한참길박게안된다 약삼십오분간배속곱아래까지 흘르는땀에 저즌몸을가지고 겨우 절정에 달하엿다 여곳의 표고는 해발 일천구백오십메타 마침내 우리단원일동은 도중에하등의고장도업시바라고바래든 성약의절정까지의탐험에성공하엿다 때는마침세시오십분어다 어에려사적순례를마치게된 단원일동은 만세를노피부르고 이령봉에경의를표하엿다 곳로영(露營)의준비를 하게되여 천막을치고 분화구의거테서 하루밤을보수하게되엿다 밤이늣게까지 대자연의밤이 엇가운듯이 단원의일부는 횃불까에모혀안저 이곳의전설 또는유래등에대하야 이야기를하고잇섯다 산상의하로밤을꿈사이에보내며 몸의피곤함을이게된 다음날인 이십구일새벽이되자 이날도이땅의 순례자들을 축복한듯이 일기는 청명하엿다 오전다섯시에 거상하야 아침밥을 먹은뒤에 령실로 향하엿다 이곳에서는 금강산의만물상과가티 평가되고잇는 오백라한의기암괴석을보앗는데그백태만상의 기암에는 경탄함을 마지안헛다 그곳으로부터 실로험준한 산길을것게되여 위험을무릅쓰고오후세시에 고성성가아래에와서 점심을먹고 피로한발을옴기며 밤아홉시경에 성내에무사히도라왓다 곳열한시쯤 려수행(麗水行)기선을타고 귀로에올랏다 실로 신의간호와 전단원의신중한 행정으로 단원일동은무사히 도라오게되엿다는것은무엇보다도 다행한일이엿다 삼십일에는려수의제승당(制勝堂)과남원(南原)의광한루(廣寒樓)를구경하고팔월일일 아침 경성역에닷는차로떠날예정이다

妻의變心에含怨
丈母等三名殺傷
犯人은公判에廻附

【咸興】지난유월 여섭어얼길흔밤 변심한녀편네와 장모(丈母)친척의 세명을 끌로찔러 살상(殺傷)식힌후다시순사까지 상해식히히세의 참극범연 홍남조질회사(朝窒會社)변전소전공(電工)김병성(金炳星)은 그동안함흥법원 예심게에서심리를 밧고잇든바 살인급살인미수죄명으로 이십팔일 그심리가끗나고 공판에넘겨갓다

氣狀까스는低地에
防毒室이絕對必要
우선은놉흔곳으로피할것
空襲의防護는어떠케? ❷

무서웁고 지독한독와사(毒瓦斯)가 공중으로 날러온 적국의비행기부터나 혹은적국으로부터 비밀히『행동대』(行動隊)로부터 시가지의 이곳저곳에 뿌렷다면 그동안 어떠케 빨리방비하여야 하겟느냐하는것은 목숨을애끼는 사람으로는 누구나 그방법을연구해야될 중요문제인데 첫재로방독면(防毒面)을 사용하는법도 잇고 방독의(防毒衣)를 착용하는수도잇다 그러나 이런방독계구의 준비가업는 경우에는『까스』의특성을 잘파단하야 렴거웅변의 수단으로써 방호하도록 평소에향상 련습해두는것이 긴요한일이다

—◇—

첫재 기상(氣狀)『까스』는

▲보통공기보다 무거운 관게로 나주곳에 뭉키게됨으로 될수잇는대로 놉흔곳으로 피할것

▲나주곳으로흘러가기 쉬우므로 집우에나 노픈언덕이나 굴독수문등(사십척이상이조타)에피란할것

▲손수건(물에 저즌것이조타)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을것

▲잠간 호흡을 정지하고 방독지대(防毒地帶)를 둘닐할것

▲소독 특히 눈코입손발을깨끗하를로 씻을일이다

—◇—

둘재로액상(液狀)까스에대하야는

▲방독의(防毒衣)의 대용품으로 유지(油紙)헌겁 (기름을칠한것)이면 더욱조타) 고무만도『레인코-트』장화(長靴)등을 사용할것

▲굽노픈신발을신을것

▲잠간 산독지역(酸毒地域)을 흡어나 판자나 나무가지나아연판(亞鉛板)등으로 덥고서 통과하는것이조타

—◇—

그다음으로는 방독실(防毒室)을 설비해두는것이 조흔데 시민각가정과 관공청 학교 회사 공장 병원등에서는 반드시 가족혹은 단체소용의 방독실을 한개내지두서너개를 설비해두어야 할일이다

면가에서 설비할 방독실은

▲『까스』의 침입을 막기위하야면틈을 꼭막을일인데 그때문에 출입구의 밧문이외는 조히로서 겹무밈에까지 충분히발르고 포탄으로 던지드라도 안전하도록 그외제를 선정하고될수잇는대로 보강공사(補强工事)를 해야한다

▲출입구는 될수잇는대로 적게하고 한편다드면 완전히 박갓공기가 드려오지안토록 하여야한다 그러하자면 막포(幕布)(고무나 참기름으로 칠한것)를 가리우는것이 편리하다 그러고 막(幕)은 얼마돌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두곳이나 세곳에설치할일이다

▲려독한두방을 방독실로하고 한방은 정실로 하야『까스』의 드러오는것을 우선 이방에서 제하고 안쪽에잇는한방에피란할수 잇도록 설비하는것이 가장조타

▲방독실에는 될수잇는대로제독(除毒)과소독(消毒)의 설비를 하여둘것이다

▲방독실을 설치하엿드라도역시집전체의 들창과 창문은 잘 닷고『까스』를막지안흐면 안된다

▲창을 멘드러두고 밧갓이보이도록 도처는고무판을 부처두고서 밧갓『까스』의 엇고업는것을 아는방법을 준비해두는것이편리하다

—◇—

그러고 학교나공장어나 회사등에서는 방독실밋 피란소(避難所)소용으로『까스관』(室)밋 폭탄의효력과 화재예대하야 안전하도록하는것여 리상어므로『콩크리-트』건축물의 지하실 (地下室)을 리용하는것어 제일조타 먼저 출입하게하고『까스』로터 피란소출입에는 노인과부녀자를 러위진신체와의복은 소독하고서 뒷방안에드리가야한다

(계속)

스포-츠 欄
女子籠球
對陣을決定

籠協朝鮮支部主催의 第五回全朝鮮女子籠球選手權大會는 來八月一、二兩日間 貞洞町 第一高女『코-트』에서 擧行할터인데 昨三十日에는 主催側에서 對陣을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

▲第一日(一日)午前九時
A、京城女師對第二高女
B、京城女高對沙里院高女(十時)
C、第一高女對龍谷高女(十一時)
D、同德女高對淑明女高(零時)

▲準決勝戰
A의勝者對B의勝者(午後五時)
C의勝者對D의勝者(午後六時)

▲第二日(二日)午後五時 決勝戰

水上과拳鬪팀
昨夜平壤에

平壤에서 本社支局後援아래열리는拳鬪戰과 京平水上戰에出戰할 東京留學生拳鬪軍과 京城水上代表팀一行은 昨三十日午後十一時京城驛發列車로 平壤으로向하엿다

養正럭비合宿中止

養正高普럭비-部一行 二十四名은 지난二十三日부터 夏季合宿練習을 鐵原에서 開始하엿든바 時局關係로 昨三十日에 鐵原에서의 合宿練習을 中止하게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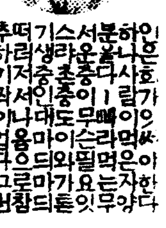
A마라손中止

今三十一日에 行할豫定이든 서울陸聯의 第二十六回A마라손會는 事情으로因하야 中止하엿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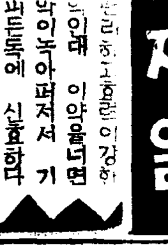
今日의運動

▲相撲=財團法人 治刑協會主催 東京大相撲(日本씨름)第一日…午前十時明治町 佛蘭西教會前(中央館後空地)(觀覽料=特等三圓、一等二圓五十錢、二等二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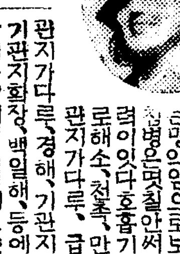
회충엔 오리가제
촌충엔 도루사일제



치질엔 엥구루 가제일



해소 기침엔 에치세- 가제일



속병 체증엔 겡오- 가제일

무슨약이든지약을써보시고 만일무효면 어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

朝鮮織物業現況

織物生産狀況寒心
殆半輸移入으로充當
副業的生産振興必要

衣食住三者의하나로 우리日常生活에 必要不可缺한 衣次卽織物의 生産狀況을보면 各織物을通하야生産不足으로 消費에對한그 生産率은 綿織物約四割六分 絹綿及綿絹綿交織物約三割七分 人造絹織物約一割一分 그他人造絹交織物約三分 麻織物及麻交織物約七割四分이며 毛織物의 生産은 殆無하야 織物需要의殆半을 輸移入主로 移入에仰하고잇는狀態로 朝鮮의織物業은 寒心한바가 잇다 最近織物業에잇서서도 大工場의進出은刮目할만한바가잇다 하나 그反面에잇서서 綿織物과 如함은 이에壓迫되어 副業的家內工業의 衰退를보고 絹織物과如함은 人造絹의 飛躍的進出로 이에代替되는現狀으로 在來로固有한 朝鮮의家內工業的織物業은 一般的으로 衰運에處하야잇다 單只麻織物만이 아직古壘를직히고잇다하나 이에도大工場은 攻勢를取하고잇서 그亦是綿織物과가튼 運命에逢着할것은 不遠한將來의일이라할것이다 勿論大工場의 進出과廉價의代用物의出現을 一槪로拒否할理由는업고 오히려 이를歡迎할만도하되 織物生産이大不足을보이고잇는朝鮮으로서 衰運에處한副業的家內工業의 振興의必要도 또한切實히느끼는바이다 다음에 朝鮮織物業의現況을略述하야 參考에供하려한다。

綿織物

大工場의進出로 副業的生産衰退
工場生産이大部分占領

綿織物은 在來로 우리의 一般的 大衆的衣次로 또는 그他各方面의 用途로 그需要가 實로 廣汎하야 織物消費의 王座를 占하고잇는바 그生産狀況을보면 從來에잇서서는 殆半 一般農家의 副業으로 自家生産의 棉花로手紡織하야 衣次그他를 自給自足하며 남어지는 市場에가지고가서 現金과 밧구엇스며 現今에잇서서도 副業的으로 綿織物을 生産하는者가 昭和十年의 調査數字에 依하면 七十七萬四千七百十戶로 推算하고잇스나 日本內地大工場에서 多量으로 生産된 綿織物의 移入 또는 朝鮮內紡織工場의 簇生으로 壓迫되어 漸次 衰退하야가고잇는터이다 近年에이르러서는 朝鮮은單只商品販賣市場으로서뿐만아니라 資本進出地로 重要視되게되어 日本內地巨大紡織會社의 朝鮮工場進出은 刮目할만한바가잇서 斯業의前途를 卜함에잇서極히注目되고잇다 朝鮮內綿織物工場에對한 適確한 調査數字는 업스므로 中小工場의 數까지를 들수는업스나 大工場으로 指目되는工場만이라도 들어보면 東洋紡의仁川工場(織機一、三〇〇臺 錘數三一、四〇〇錘) 永登浦工場(九月頃開業) 鐘紡의 全南工場(織機一、〇〇〇臺 錘數三〇、〇〇〇錘) 京城工場(織機一、五〇〇臺 錘數五〇、〇〇〇錘) 釜山의 朝鮮紡織(織機一、二二四臺 錘數四〇、〇〇〇錘) 永登浦의 京城紡織(織機八九八臺 錘數二一、六〇〇錘)等이라할것이며 그밧게 東洋紡 鐘紡 大日本紡等大會社가 着着各地에 工場進出을 計畫하고잇다

그런데 朝鮮內綿織物의 生産狀況은 어떠한가를 보기로하자 昭和十年의 調査數字에 依하면 (單位千圓)

	工場	副業	計
綿織物	一九、八一四	七、二三七	二七、〇五一
綿縮	—	一	一
生金巾	一、九七七	—	一、九七七
生粗布	一七、四三六	—	一七、四三六
白木綿(重目)	五六、四五五	六、五〇〇	
綿帆布	一三三	—	一三三
小倉織	一七	一一	一八
色木綿	一四	六二	一五五
縞絣及柄木綿	三	三	四
朝鮮人用擬麻布	一二	三	三
其他	二四	三	二七

으로 綿織物總生産額은 二千七百五萬二千圓인데 그中 工場生産이 一千九百八十一萬四千圓이고 副業生産은 七百廿三萬七千圓이어서 少數의工場生産이 壓倒的 多數를 生産하야 斯業의副業的生産의 衰微와 大工場의 獨占形式을 더더히窺視할수잇다 그러면 生産은 이러한데 消費는 어떠한가하면 (單位千圓)

▲綿織物 五八、六〇二

綿호란네루	二、四六八	綿縮	三六八
生金巾	一、九七六	生粗布	一五、八九九
生細布	三、〇八〇	晒金巾	四、二四一
晒粗布	一	晒細布	一、四〇五
天竺布	一〇〇	白木綿(重目)	六、八四四
白木綿(輕目)	三〇一	綿帆布	四四三
寒冷紗	三三	포푸린	一、五九二
小倉織	八〇三	綿모스린	四八一
染金巾	七四〇	更紗	三七一
色木綿	四四七	縞絣及柄木綿	二二四
진스(細綾光輝付)	五九〇	진스(細綾光輝無)	一、〇〇九
太綾布	七、四〇〇	綿繻子	一、二三五
敷輸地	二一七	朝鮮人用擬麻布	四九
린네르	三、一〇五	手織布	六六六
紋織布及繡織布	四四四	其他	一、一〇四

으로 自給自足되는것은 生粗布와 縞絣及柄木綿뿐이오 生金巾과 白木綿(重目)도 거이 自給自足의 域에 達하려하고잇스나 그밧게것은 모다生産不足이어서 總體的으로보면 消費額은 五千八百六十六萬二千圓으로 生産率은 四六%에 不過하야 綿織物의 過半을 移入에仰하고잇나니 이를數字로 들어보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綿織物移入 三三、三二一

綿호란네루	二、四六八	綿縮	三六七
生金巾	一九	生粗布	一、三三三
生細布	三、〇八〇	晒金巾	四、二四一
晒粗布	一	晒細布	一、四〇五
天竺布	一〇〇	白木綿(重目)	三八九
白木綿(輕目)	三〇一	綿帆布	三一〇
寒冷紗	三三	포푸린	一、五九二
小倉織	七八六	綿모스린	四八一
染金巾	七四〇	更紗	三七一
色木綿	三三三	縞絣及柄木綿	二二一
진스(細綾光輝付)	五九〇	진스(細綾光輝無)	一、〇〇九
太綾布	七、四〇〇	綿繻子	一、二三五
敷輸地	二一七	朝鮮人用擬麻布	四九
린네르	三、一〇五	手織布	六六六
紋織布及繡織布	四四四	其他	一、〇七四

그리고 朝鮮內産이건 日本內地産의 通過貿易이건 間 綿織物의 輸移出도 多少잇나니 먼저 移出을보면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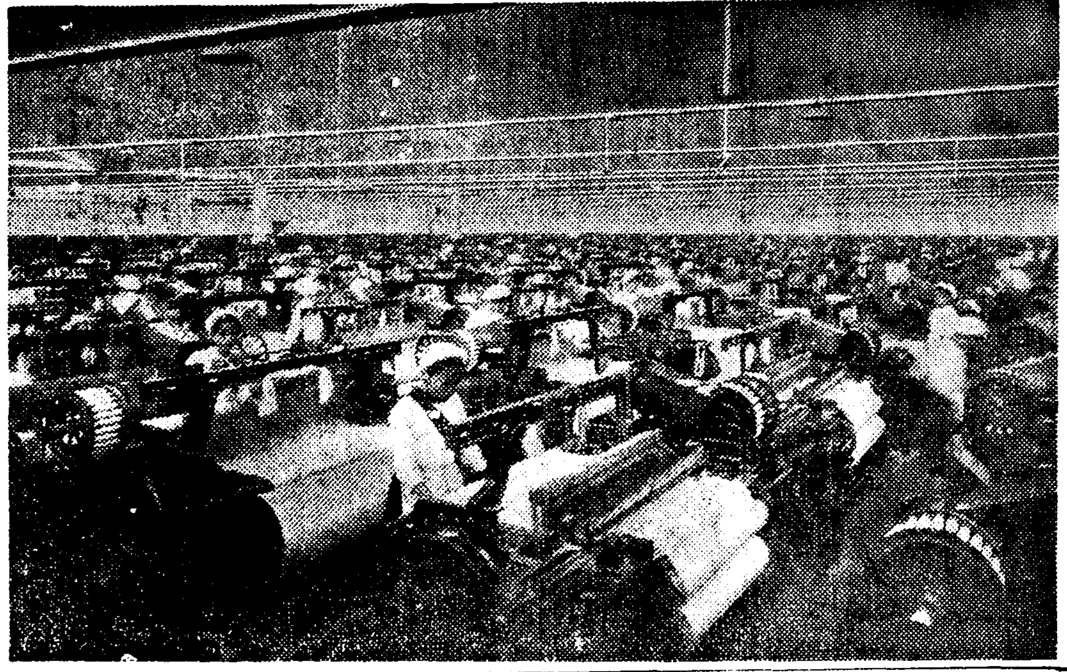
▲綿織物移出 一、一八七
生粗布 五一一 縞絣及柄木綿 五九五
其他 九六九

이잇고 輸出을보면 (單位千圓)

▲綿織物輸出 三、五三一
生粗布 二、三一七 生細布 二八九
晒細布 七八 그他 八八九

이잇다

다음에 綿織物의 原料인 綿絲에對하야보면 副業的生産에잇서서는 大部分이 自家栽培의棉花를 手紡하야 小幅物을 手織하는데 使用하고 小部分이 機械紡績絲를 購入使用하야 白木綿、平織及綾織等을 生産하고잇고 工場生産에잇서서는 大工場은 모다 紡織과 製織을 兼營하야 自家紡績絲로 製織하고잇다 그런데 그紡織에잇서서 使用하는 棉花는 約二〇%를 朝鮮産을 使用하고 그餘八〇%는 棉花를 移入하야 使用하고잇는데 昭和十一年統計에依하면 棉花輸入百一萬四千圓 移入二千百七十四萬圓으로되어잇고 綿絲의 輸入은廿九萬圓 移入은五百七十三萬七千圓으로되어잇스며 輸出도多少업지안허 六十五萬四千圓이잇는데 그中 朝鮮內生産은 七萬六千圓이오 日本內地産의 朝鮮通過輸出이 十七萬七千圓이다



麻織物

在來手紡製織의 古壘를尙今固守
獨特한光澤과硬味가取할長點
今後의工場進出注目

朝鮮의 麻織物은 中春부터 中秋에 이르기까지 한해의 殆半에亘한 季節의 衣次로 널리實用되고 잇슬뿐만아니라 그밧게 勞働服 用祭服等으로 不可缺한것으로 他에보기드믄 多額의需要가잇다 그런데 그生産은 農家의 副業으로 大麻와 苧麻를 手紡製織한 手紡大麻布(單只麻布라함)와 手紡苧麻布(苧布라함)를 主體로하고 工場生産에依하는것으로는 紡績麻布가 多少잇슬뿐으로 生産과 需要와의 사히에는 相當한 距離가잇서 그不足한것은 中國으로부터 手紡苧麻布 所謂支那麻布를 輸入하고 또 日本內地로부터 紡績麻布와 麻布代用品인 擬麻布를 移入하야 需要에 充當하고잇는터이다

이러한 形便으로 麻織物의副業的生産戶數는 昭和十年調査에依하면 大麻布六十二萬四千百三十一戶 苧麻布八萬二千三百戶 紡績麻布一萬一千八百八十三戶인데 麻織物工場生産이라할것은 釜山에잇는 帝國製麻釜山工場과 京城近郊往十里의 德國洋行等數個의中小工場이잇슬뿐이다 그러므로 그生産에잇서서도 (單位千圓)

	工場	副業	計
麻織物及麻交織物	七九〇	六、六四八	七、四三八
生麻布及晒麻布	一七	四、八三三	四、八五〇
紡績麻布	五	三三三	三三八
苧布	一	一、九六六	一、九六七
特殊物	五	—	五
廣幅麻布	三〇	—	三〇
그他麻織物(交織을包含)	四二	一四	五六

으로 麻織物總生産額은 七百四十三萬八千圓인데 그中工場生産이 七十九萬圓이고 副業生産이 六百六十四萬八千圓으로 副業生産이 斷然優勢하다

그런데 消費를보면 (單位千圓)

▲麻織物及麻交織物 一〇、一〇〇
生麻布及晒麻布 四、八三三 紡績麻布 三三八
苧布 三、〇二一 特殊物 五
廣幅物 三〇 麻帆布 一〇
그他麻織物(交織包含) 一、一六一

으로 消費總額은 一千一萬圓으로서 이와 生産額을 比較하야보면 生産率은 七四·三〇%로 相當한額의 生産不足으로 이를前述한바와가티 輸移入에 仰하고잇는데 數字로들어보면 輸入은苧布百五十八萬四千圓 移入은 麻帆布一萬圓 그他麻織物(交織包含) 百五萬一千圓이잇고 輸出은 九千圓 移出은六萬五千圓이 엿다

그러면 다음에 麻織物의 原料의生産과 그紡織狀況을 좀 說明하야보기로하자

大麻는 朝鮮의 現狀으로는 棉花에 다음가는 重要한 纖維作物로 그栽培는 全朝鮮各地에普及되어잇스나 在來品種은 大槪早出로 草丈이 짧버서 日本內地栃木種에 比하면 收穫、品質이 떠러진다 그러므로 生産奬勵에잇서서 栽培面積의 擴張보다도 優良品種의普及과 耕種及製麻法의 改善에 努力하고잇는터인데 昨年의 生産高는 四百七十九萬四千五百三十一貫이다

또 苧麻는 株根의 越冬이必要한 關係上 氣候가 比較的溫暖한 全北、全南、忠南等地의 湖南地方이 主産地로 그産額은 만치안흐나 品質이優良하야 手紡原料로 好適한바 近來 日本內地紡績業者도 苧麻生産에 着眼하야 南朝鮮方面에 增殖을 企圖하고 着着實行에 着手하고잇스므로 將來 그增産을따라 紡績工場도 建設되려는 機運에잇는데 昨年의 生産高는 十一萬六千五百四十六貫이다

그리고 亞麻는 麻絲紡績原料로 麻類中 가장 重要한것이나 從來 朝鮮內의 生産은 皆無하엿섯다 그러나 元來 亞麻는寒冷한 地帶에 잘 生育하는것으로 廣大한 北朝鮮高地帶가 亞麻栽培의 適地로 着眼되어 目下에 適地에 亞麻栽培奬勵計畫을 樹立하고 實施中인바 그計畫은 爲先 北朝鮮開拓地帶를 奬勵區域으로하고 昭和九年度부터 十個年間 年年六百町步式 面積을 擴張하야 最終年에는 六千町步의 作付面積에 達케하야 反當收量四百斤、總收量二千四百萬斤을 目標로하고 現在는 主로 咸南甲山、豐山、三水의各郡에 栽培되고잇는데 그生産品은 帝國製麻에서 一手引受하기로되어 同社에서는 豐山과甲山에 製線工場을 設置하엿는바 昨年의 生産高는 三十三萬三千三百三十九貫이다

이러케 生産된 麻로 어떠케 紡織되고잇나하면 副業的手紡麻布는 大麻或은苧麻를原料로 이를 製絲한後 漂白한 無漂의平絲를 經緯絲로 使用하야 主로在來의居坐機로 手織으로 製織한것인데 農家의 婦女子가 이에從事하고잇다 元來朝鮮에서는 手紡麻布의光澤과硬味가 實用되는 關係上 機械紡織의 發達된今日에잇서서도 盛히 製織되고잇서 大麻布는 全朝鮮에亘하야 生産되고잇는데 慶北을首位로 慶南 江原 全南 平北 咸北 京畿의 順序이고 特히慶北의安東布 慶南의居昌布 江原道一圓의 江布 全南의 求禮布、平北의延布、咸北의鏡布 明川布 吉州布 咸南의北靑布等이古來로著名하며 苧布는 忠南이 主産地로 舒川、扶餘、靑陽、保寧의各郡에서 優良品을 生産하야 古來로 韓山苧로 有名하고 忠南다음에는 全南、全北、慶南의各道가 産地이다

그리고 紡績麻布는 手紡麻布의 不足을 補充하고 支那麻布의輸入을 防遏하야할것으로 各地方의 生産奬勵에도 不拘하고 아직 産額이 僅少하며 工場生産은 前述한바와가티 보잘것업고 副業生産으로서는 京畿江華郡一圓이 가장 旺盛하고 그다음으로 黃海、咸南、慶南、慶北等이 産地이다 그런데이紡績麻布에 使用되는 紡績麻絲는 朝鮮內의 生産은 殆無하야 거의 全部 移入하고잇는 狀態로 昨年의 移入額은 二十萬七千圓이다 그리고 日本內地로부터 移入되는 紡績麻布는 東洋麻絲會社와 滋賀縣方面의 中小工場에서 生産된것이만타

또支那麻布는 苧麻를 原料로 農家의 副業으로 手紡製織된것인데 主産地는 廣東、江西、福建、湖南、四川等의 各省으로 上海를 取引中心地로하고 船便으로 仁川、그他에 輸入되고잇다

人造絹織物

大衆實用化
需要加速度的增加
工場建設接踵

朝鮮의 人絹織物은 大正三年頃 佛國으로부터 京城에 輸入된것이 처음인데 當時는 實用의 程度에이르지못하고 一部 裝飾品으로 利用되엇다 그後 日本內地의 人絹織物도 여러가지로 改良되어 價格이 低廉하고 光澤이 美麗한點이 朝鮮人一般大衆의 嗜好에 適合하야 그需要는 急激히 增加하야 移入에 依하야 需要를 채우고잇섯다 그런데 人絹織物이 完全히 大衆的實用品으로 化하야 需要가 加速度的으로 增加함을 따라 朝鮮內에도 그製織을 企圖하는者가 續出하야 從來의綿織工場의 殆半이 人絹織으로轉向하고 또 新規로 建設되는것도 뒤를잇게되엇는데 現在 主要한 工場으로서는 安養의朝鮮人絹織(一、〇〇〇臺)、釜山의朝鮮織物(三一九臺) 丸新絹布(一〇八臺) 京城의 泰昌織物(三〇〇臺)、京城染色(三〇〇臺) 朝鮮絹織(一〇八臺) 海東織物(一〇八臺) 麗水의朝日織物(六四臺) 木浦의木浦織物(五六臺)、鎭南浦의 新光織物等이 잇는바 그主要生産品은 要人絹織物로는 平熟素와 紋熟素、絹仁等이며 副業的으로도 多少 生産하고잇다 그生産額을 昭和十年調査數字에依하야보면 (單位千圓)

	工場	副業	計
▲人造絹織物	一、六六〇	三	一、六六三
絹熟素及文華絹	六六一	—	六六一
着尺物	三二	—	三二
그他	一、九六七	三	一、九七〇

으로 人造絹織物의 總生産額은 百六十七萬圓인데 消費를보면 (單位千圓)

▲人造絹織物 一四、八六〇
繻子及緞子 二、五八四
熟素及紗及紋華絹 四、八九三
紗及絽 一、四七二
着尺物 一
그他 六、六五八

으로 消費總額은 一千四百八十六萬圓이어서 生産率은 겨우 一一、二三%에 不過하야 아직도 大部分을 移入에 仰하고잇나니 그移入을보면 (單位千圓)

▲人造絹織物移入 一三、九四〇
繻子及緞子 二、五八四
熟素及文華絹 四、六二一
紗及絽 一、四七二
着尺物 一、五〇一
그他 一、二七一

으로 一千三百九十四萬圓의 巨額에 達한다 그밧게 絹綿人絹交織物도잇스나 이는 絹織物을 論할때 旣히말하엿스므로 이에는 略하기로하고 그他의 人造絹交織物에對하야보면 副業生産으로 百九萬一千圓이잇는데 消費는 三百八十六萬八千圓이잇는데 生産不足이어서 三百四十三萬圓을 輸入하고잇고 그러면서도 輸出도四十三萬三千圓이엇다

그리고 色服着用의 奬勵를 따라 色物의 需要가 增加한것 色化에備하기爲하야 스톡을 多量으로 가질 必要가잇는것、新規面 急速히 需要에 應할수업는 色物을 日本內地에 注文하는것 또 日本內地에서는 統制에 依하야 新規로 工場을 設置하기 困難한것等으로 朝鮮內에 人絹布의 染色加工業도 最近數三年來 簇出하게되어 日本內地로부터 移入되는 人絹布는 거의 未加工品으로되엇는바 그染色加工工場을 들어보면 朝鮮織物、泰昌織物、日鮮染工、朝鮮紡織、丸和工業、京城染色等이잇다

그런데 人絹織物의 原料인 人絹絲는 아직 朝鮮內에서는 生産되는것이업서 모두 日本內地로부터 移入하고잇는데 昨年의 移入額은 二百三十二萬四千圓인바 그中 一千二萬七千圓은 輸出되엇다 그러나 朝鮮에는 蓄積이 豐富한 北朝鮮一帶의 針葉樹、棉花의增産에伴한『콧트린타ー』의多産等 人絹原料로서 價値가 充分한것이어서 將來人絹業의 勃興이 期待되는터로 目下 吉州의 北朝鮮紙化에서 落葉松을 資材로 人絹用『펄프』를 製造하고 그他도 二、三의 企畫이잇서 이에 人絹絲製造도 不遠하게되리라고생각된다

織物生産過程

綿布＝棉花→開花→混棉→打棉→梳棉→整梳→練條→粗紡→精紡→綿絲―綿絲→經絲→糊付→整經→機上→製織→綿布

麻布＝亞麻→株解→梳梳→延絲→粗紡→精紡→麻絲―機織은綿布와大同小異

人絹布＝木材→木材펄프→비스코ー스→人絹絲―機織은綿布와大同小異

【寫眞은綿布製織의一場面】

幼年創刊號
八月中旬發賣
定價 二十錢 送料 一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五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地方版

綾州護岸工事 實施를要望함

【綾州】全南의 米倉임은世上에서周知하는바이다 그런데 이農産物의大部分이 綾州平野十萬餘町步에서 産出하는바인데 一朝洪水가나면 河川은 氾濫하여農産物이 全滅狀態에이른다 綾州沿江流域에서 生活을하는 綾州道谷住民大部分은 小作農으로그날그날을 겨우延命하여가는 貧窮한곳인데 雪上加霜으로 昨年八月頃에 南朝鮮一帶를 襲來한豪雨에 그平野의 大部分이 水國化하고 百餘戶의 浸水倒壞를보앗고 田畓數百町步가 浸水또는流失되여 被害額이 數千萬圓이라는 數字를내엿다 關係住民은 이水害防止에 對하야 關係當局에 여러하야 五年前부터 對策을講求하여달라고 哀願陳情한바잇스나 何等의 消息이업드니 今春에는 實地調査와 測量을하엿다 그래서地方民들은 喜色이 滿面하여 今春에는 實現될것을 認定하엿든것이나 只今까지 또다시消息이업서洪水期인이때에住民은恐怖에떨고잇슬뿐이다 이러한 現實임에도不拘하고 아직 具體的對策을 세우지못하고 그대로 默過한다는것은 너무도 無誠意한일이 아닌가한다.

구태여 吾人이 말치안허도當局은 이事情을 모를리가업지만은 地方에잇서서 그들의慘狀을 目睹하고잇는 吾人으로서는 到底히 그대로 默過할수업서서拙筆을들어 一言을告하노니 當局은 綾州의護岸工事를하로밧비實施하야 死線에서 彷徨하는 綾州道谷住民들의 生活을 安堵케하여주기를 再三바라는바이다.

綾州支局 一記者

延岩公普校 增級說을듯고

現今우리朝鮮에 잇서서 어느地方을勿論하고 重要한 問題의하나는 敎育問題이다 國民과社會의 發展은 敎育普及如何에잇다는것은 周知하는바이며 古今東西를 通하야 興亡盛衰도 그敎育如何에 따라서 左右된다는것도 이제 또 다시 말할必要도업다 그런데 今般우리 遂安延岩公立普通學校學級을 增設코저 面內有志五十餘名이 奮起하여 活動한다함을드를때 記者는 所感을 一言으로 感謝를表하랴고한다.

우리遂安地方으로말하면 山多地狹한 一小山郡인데 延岩公普校는 大正九年四月에創立한 于今十四年에 六學年制로 學年延長은하엿스나 最近三四年內에는 每年志願者 百餘名中에서 겨우 卅餘名밧게 入學을못하게됨으로 學齡兒童의漫然한兒童들은 눈물을 짓고 돌라서며 文盲의구렁에빠짐을免치못하고만다 이런悲慘한 處地에잇섯을볼때 뜻잇는우리父兄들로야 어찌同情이업슬까

그런데 今月廿三日에는 面內有志五十餘名은 큰뜻을가지고 蹶起하여 每名百圓式 五千餘圓을醵出하여 一學級을더增設케되엿다고한다

아! 遂安有志諸氏여 延岩公普校를爲하야 이미五千餘圓基金을取合하게된것을 다시금생각하여보라 그들도相當한財産家가되여서 그러케한것은아니다 다만 敎育에對한 熱誠 「배워주다」는 그런精誠과 느낌은 그것이아닌가 百圓이도 그리적은것은아닌데 如此한 捐金을實施한것이야 참말로 敬服치안흘수업다

發起人諸氏여 이번奮起한 熱心을 식히지말어라 「一到何事不成」이란 先人의 말을 거울삼아 우리子女의 과未來의 發展을爲하야 賢하게 同心協力하여 百折不屈하는勇氣로써우리 子女들에 盲을免케하여주자 郡內有志이여 우리遂安敎育機關에 關心하야 우리의責任을 다하기로全力하야 前記와 貴下에 目的貫徹을 爲하 協力邁進하기를바란다.

遂安支局 一記者

八十工場八千職工에 幼年工이二割占領

洋襪業이 斷然王座、그담은 "고무工業"

工業都市化한平壤의現況

【平壤】공업도시 평양을말하는 수자ー를七月말현재상시이십명이상의 직공을가진공장은 팔십개소에 종사용인수칠천삼백삼십이명에달하여잇는바 이제각업태별로나누어보면 양말洋襪업이단연왕좌를점령하엿고 다음은 고무공업과 철공업인데 그상세는다음과갓다

洋襪業一七 고무靴、鐵工業各一三 煉瓦業五 機業、精米業 鑄物業、硝子業、印刷業、酒造業各三 煙草製造業、染色業、製絲業各二 製絲業、製糖業、製綿業、醸造業、製綿業 製陶業、電氣業各一 合八〇

그리고 종업직공의 년령별을보면 성년공육천칠백팔십오명、유년공일천이백사십칠명으로 유년공이전체의 이할을점령하고잇서 사회적으로 주목을끄는동시에 비인도적그들의 생활과경을 상상케된다 다시종업직공을 조선인、일본내지인、지나인별로보면다음과갓다 (괄호안은유년공)

朝鮮人 六、八〇三人(一、一一一人)
日本內地人 二九五人(一五人)
支那人 二三四人(一二一人)

敎役者修養會

【伊川】기독교감리교에서는 이천(伊川)신계(新溪) 평산(平山) 금천(金川)의 사군내에잇는 종교교역에대한 교역자의 수양회를 다음과가티 개최한다는데 성황을 예기한다고한다

時日 八月二十五日부터一週間
場所 金川郡三聖台
科目及講師
兒童心理學 崔長福
主校管理法 孫仲五
敎育者 李恒信

橋梁工事遲延으로 交通上不便多大

雨期經過기다려着工할心算? 住民側의不平漸高

【江陵】현재 강원도내의 도로는 비만조곰 오면 교통이 두절되어 매양 곤난을 당하고잇는데 이제 그중요한 원인을 들것가트면 작년대홍수해를 입어교량의 류실로된채 아즉 복구안되엇음인데 이 교량복구에 대하야는 금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즉시로 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되엇는데 결정후 반년이 경과되엿서도 공사착수조차 안한곳이만코 혹 입찰(入札)을 하엿스나 금년구월경에 이르러 착공을 하게되는등 공정(工程)은 지지부진상태이다 이제 이공정부진의 최중요한 원인은 해마다 폭위를 발휘하는 장마철전에 착공하면 공사도중에 류실의 액을 당할가하야 당국자가 일부러 공사를 늣게 시작하라는 태도로 림하기때문이라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통에대한 고장을 제거한다는 근본의의에 버서나는 처사라하야 비난이 업슬수업다한다

學院爲해行商

奇特한江陵三樂院生徒들

【江陵】강릉사립삼락학원(三樂學院)은무산아동과 학령초과아동의 유영기관으로 과거십년동안의공헌이 실로만흔 터인데사오、륙 세학년생도들은 여름방학을리용하야 과실、기타 상품을 행상(行商)해서 직업과(職業科)의실습을 겸하야 여기서어든것은 전부그학원설비비에 충당할터이라는데 백도를넘나드는 혹열에 땀을흘니면서도 오히려만족한드시 다니는 모양은 보는사람들로 하야곰 감탄함을금치못하게한다고한다

내에서도 다음과가티 경찰서를 통하야 헌금과위문금이 답지하는중이라고한다

▲三十圓鄭東洙 ▲二十圓任良準 ▲三圓八十五錢東水里靑年分團 ▲四圓五錢東水里農村振興會 ▲三圓九十錢東水里婦人會 ▲五圓東面林塘里 鄭寶深組 ▲五圓六十錢東面林塘簡易消防組 ▲五圓林塘婦人會 ▲五圓林塘靑年分團

楊口에서도獻金

【楊口】비상시 총후의응원으로 국방헌금과 황군위문금을 모집하야 군사령부로 보내달라는소리는 크거니와 양구군(楊口郡)

平農寄宿舍建築費 寄附모아充當

工費五千圓不足으로

【平壤】평양공립농업학교(平農)는 교사를 부외사동리(寺洞里)에 이전하는동시에 일만오천원의 공사비로 사백명을 수용할

金城面에서도 時局認識大會

【金城】지난이십팔일 오전십시 금성서연무장(金城署演武場)에서 면민대회가 개최되엿다 군수이하 각관공청원 청년단원 부인회원 지방유지약사백명이 회합하야 세시간동안이나 걸리엿든데 열성잇게도불구하고 삼사십리의촌에서도 다수참집하야 대성황을 일우웟섯다

三看護婦血書로 看護報國을志願

【咸興】함흥간호부회(看護部會)영산도요(永山)(二三)조중도시(村中)(二三)본전시메(本田)(二〇)의세녀자는간호보국(看護報國)을혈서로지원하야 감격케하고잇다

平壤鑛山講習所 九月中旬에開講

【平壤】평남도에서는 광산방면의 전문적기술자양성소가 필요함을느끼고 광산강습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착수하엿다는데 강습기간은 반년혹은일개년의 예정으로 초등학교졸업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오십명을 모집하야 평양부내의 비인건물을 리용하여수업키로 되엇다한다

그런데 이강습소만 졸업하면 광산방면어디서나 대환영을 할것으로 초임급은 사십오원정도라는데 개강은구월중순이라한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도 씨원한 취직처가업서 사회적 문제까지되어잇는 오늘인만큼 지망자의 홍수는 면치못할것으로 무더운 이녀름날에 입학시험지옥을 연출할것으로 예상된다

漁業株式會社創立

【鎭南浦】어항진남포에 수양고(水揚高)를노피고저 도당국에서 진남포기선저인망(底引網)허가를 주선계획이 과합는 기보한 바어니와 허가내시를받은 전연(田淵)가는 오륙만원의 주식회사를조직고저 방금활동중이라는바 주금은 전액일시불로되엿다고하며 회사는 진남포어업주식회사(漁業株式會社)라고한다

朝鮮商船會社에 航路許可下附

【釜山】경남도해안에 산재한각 상공업자들을 로일반 사회에서 대망하고잇던 부산부 대창정大사(朝鮮商船株式會社)의항로(航路)허가는 허가신청 제출후일부의맹렬한 반대운동으로 가진파란을 겪거오든바 지난이십칠일부로 정식으로 허가가 하부되엿다한다 그래서 동회사에서는 곳영업을 개시코자 준비에분망중이라는데 금후는 중대보다려 갯급하주에게 만흔편익이 잇스리라하야 일반은동회사에 만흔 기대를가지고잇다고한다

惠山鎭一帶에 旱魃尤甚

【惠山鎭】혜산진일대는 최근에 한발이심하야 농작물피해가 점차만허지는관계로 농가에서 우수중에잇다 三월까지는 기후가순조로워 일반적으로 농사성적이 양호하엿스나 칠월부터는 비가한방울도 오지안코 한난계(寒暖計)의 수은주는 매일구십

平壤에도人夫難

勞働可能者2243人으론供給不足 平壤府에서需要率을調査

【平壤】평양부에서는 부내의제반공사의 노농자수급 조절을위하여 매월노농가능자의 조사를계속하고잇는데 유월말 현재의노농가능자는 이천이백사십삼인으로 의외에도 부진상태를보혀 현재평양부공사장에는 아직인부난에는 당면하지안핫스나 장래가우려되는터이다 이제내역을보면다음과가트며 현재평양부내에는 종방(鐘紡)건축공사를 제외한후 다른대공사는업다

日傭勞働者▲農業七四名▲土木建築四四六名▲其他一、一二五二名▲農林業五、一名▲商工業一一四名▲其他二八名▲無職一七五名

諒解工作도歸虛 二三年內엔實現難測

晴曇不定의平壤NO2人道橋問題

【平壤】실현 일보전에서 대장성사정을통과로낫솜내류산된 평양제이인도교 가설사회에 대하야 이십오만평양시민은 조금도 실망의빛을 보히지아니하고 명년도에는 기어히 실현되기를기다리고 잇스며 부당국에서도 가지게 든뜻으로 서택(西澤)부시가지계장을 총독부에 파송하야 제이인도교가 포함된 총공비사백만원을 요하는 제일기시가지계획사업에 대하야 량해공작을 하엿스나 대체로 삭감을 당하고 이백사십만원공비로써 삼개년계속사업인 긴급시행을 요하는 주요가도 일부분만이 인가되어 다시금 제이인도교문제는 암운에싸혀엿는데 철지기타공사재료가 폭등한 오늘에잇서서 이삼년래실현은 절망상태로 보인다

全朝鮮水泳講習

本報長淵支局後援 九味浦에서開催中

【長淵】조선의 명승지요 해수욕장으로써 자못일홈이 놉흔구미포(九味浦)에는 년부년복잡하여 다수유객하는터임으로 동송천체육협회(松川體育協會)에서는 이십팔일부터 수영계에 일홈이놉흔 김옥성(金玉成)선생을 청빙하여 본보장연지국후원하에 전조선수영강습회를 개최할터이라는데 참가자가 만허 성황을이루고잇다하며 회기는일주일간이라한다

豐川支局後援의 蹴球大會盛況

【豐川】풍천체육회(豐川體育會)주최와 본보풍천지국후원아래제一회 황해청소년축구대회(第一回黃海靑少年蹴球大會)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사오양일간 당지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열리엇다 도내의열두명장을 십여단체가 참가하야 본대회는 비상한 인기를이끌어 천에갓가운관중이운집하야 근래에 보기드믄대성황을이루엇다 대회초두인 이십삼일오전열시에 각단체의입장식이잇섯고 풍천체육회 회장로진세(盧鎭世)씨의개회사가잇슨후 드디어 경기의막이열니엿는데 열렬·숭경투하는 용기가넘치는 건아들의 격전은일반관중으로하여금 통쾌한감을 늣기게햇스며 더욱이 재령(載寧)군의세련된경기는 관중의 박수갈채를독차지하엿다 이리하야 본대회는 대성황리에 폐막되고 각단의 우승팀과 참가단체는 다음과갓다

青年團優勝 載寧明新軍
少年團優勝 載寧軍

參加團

載寧明新團 殷栗白民團 石灘靑年團 長連靑年團 豐川靑年團 豐川留學生團 載寧少年團 信川少年團 水橋少年團 松禾少年團 石灘少年團 樂道少年團 豐川少年團

今夜로迫頭한 平壤의拳鬪戰

東京留學生軍對全平壤軍 人氣는西道에沸騰

平壤支局後援

【平壤】평양권투계(拳鬪界)유사이래의 최초의 열렬적이된 개될것으로 만도 열광적인기를 집중하고잇든 "동경유학생군"대"전평양군"의 권투전은 맛츰내 삼십일일 오후여덜시부터 평양신공회당 특설"링"에서 열리게 되엇는데 래의 동경유학생군이 경성에서의 분패를 설욕할것인가? 전평양군이 권투평양의 판록을 보일것인가? 패전의 기록이업는 전평양군의 용상을든 원기양성한가은데 "다도동경군"의구는결심으로 시합시간만 기다리고잇나 이시합이야 말로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숨을죽이게할것이며 자기도 모르는사이에박수 그리고 환호성이 꼬리를 물고이러날것이다 누가 이서도의책임을걸머진 젊은 용사들의 장쾌한육박전을 보지못하고 참다운 권투전을 말하리오? 오라! 그리하여 권투조선을 건설할 이 용사들의 압길을마음것 축복하자!

그런데 주최측인 창우회권투부에서는 예매권이 멀리 진남포(鎭南浦)안주(安州)사리원(沙里院)등지에까지 팔리여 나가는것으로보아 당일의 대혼잡을예상하고 그것을 방지키위하야 오전여섯시부터 회원권을 발매하리라는데 회원권은 일반오십전 학생삼십전이라한다

赤帝의誘惑·死의水泳!

池沼에서멱감다 두小兒一時溺死

平壤西城里의慘變

【平壤】삼십이도를 중심으로오르나리는 더위는 맛츰내일시에 천진 난만한두어린이의 생명을빼아서간 참극을나혓다 평양부내 서성리(西城里)삼구번지원찬도(元贊道)장남승철(承哲)(七)과 부내기림리(箕林里)김창원(金昌元)장남 창복(昌福)(七)두어린 아이가 서성리교엽못에서 물작난을 하다가실족하여 무참히도 한꺼번에빠져죽엇다 급보를듯고 달려온 동리사람들이 대수사를하여 얼마후에건저냇스나 모다절명되어 잇섯다한다

水泳하다가 腦震蕩일어溺死

【龜城】지난 이십칠일 귀성읍내에서약 십정쯤 되는동문천(東門川)이란강에 귀성군읍내 청부업 리홍표(李弘標)씨의 차남영훈(永勳)(一四)(보교륙년생)은 여러동무들과 가치 수영을하고잇다가 잘못하여 머리를 교각에부드치고 함께 그만 수중에서뇌진탕을 일으켜 가엽게도 익사하고마럿는바 금년여름의 첫희생으로 일반아동을 둔가정에서는 주의할필요가잇다한다

城川江에서도 八歲兒가헴치다죽어

【咸興】지난이십칠일 오후두시경 함흥부신흥정(新興町)최몸롱상 천림복(千臨福)(八)은 너무 더워서 동무들과 함께 성천강에나가서 목욕하다가 알지못하는동안 깁흔곳에 빠저죽고 말엇다는데 성천강에서는 매년 녀름이되면 이가튼 참사가자조잇스며 금년들어서는 이것이 첫희생이라고한다

本報支局後援의 料理講習盛況

【釜山】부민공립보통학교모자회(富民公立普校母姉會)주최와 본보부산지국 후원하에 개최된제일회조선료리 강습회(朝鮮料理講習會)는기보한바와 가티지난이십칠일부터 시작하야 종합구삼일간매일 오전열시부터 오후두시까지 강습을계속하엿는데 일반회원들도 열심히 배워서만흔소득이잇슨후 이십구일에 마치엿는데 일반회원들은 주최측과 강사에대하야 찬사가 자자하다고한다

群山第二期築港의 實現促進을決議

全北臨時道會滿場一致로可決코 要路當局에即時電請

【群山】소문단바에의하면 지난이십일 오전十시부터 개최된전북도(全北道)의 림시도회(臨時道會)에서 군산선출도회의원인동구(樋口)이등(伊藤)량씨로부터군산의 다년현안인 군산항제이기실현촉성안(實現促成案)에 대한바 만장일치로 동안을 채택한후 즉시총독、정무총감、내무국장、재무국장등 각요로에전청(電請)을 하얏다는바 전문은다음과갓다한다

群山港第二期築港工事의 施行을 現下의非常重大한 時局에處하여는 더욱더 그緊要함을痛感하는바 昭和十三年度부터는 期於히實施하도록 特別히御高配하야주심을 本日本道會에서 滿場一致可決한意見書에基하야 要請함

國防婦人會組織

【盈德】북지사변이래 애국정열은극도로 고조되는이때에 경북영덕군(盈德郡)에서는 면장회의를소집강연회(講演會)를 개최하고시국의인식을 고취하여오든바 지난이십팔일 오전十시부터군내각계각층부녀를 총망라하야 국방부인회(國防婦人會)영덕분회(盈德分會)를창립한바 일동은영덕 신사에 무운장구의 기원을행한후 당지 연무장(演武場)에서 신전보평(神田保平)씨의사회로 백여명회원 참석리에 각항토의와 역원선거를 마친후권영세(權寧世)군수 전중서장(田中)의 수씨의 축사가잇섯스며 끝으로 만세삼창이잇슨후 동십이시경에 폐회하엿다고한다

全朝鮮個人庭球

本報釜山支局後援下 八月廿二日釜山서

【釜山】부산체육회(釜山體育會)에서는 본보부산지국 후원하에 제일회 전조선개인정구대회(全朝鮮個人庭球大會)를 오는팔월이십이일 오전十시부터 부산부초량정(草梁町)동척(東拓)코ー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방금그준비에 대망중이라는데 참가희망자는 팔월이십일오후까지에 부내중도정(中島町)일정목에잇는 체육회사무소 또는초량정(草梁町)본보부산지국에 참가를바란다고하며 추첨(抽籤)은대회에서한후 당일에발표한다고한다 그리고대회강령(大會綱領)급심판규정(審判規定)은다음과갓다

大會綱領

一、本大會는 庭球技能과 體育을獎勵함으로써 運動精神의啓發及朝鮮庭球界의 發展을目的함
一、本大會는 全朝鮮個人庭球의 優勝權을決定하고 優勝旗及副賞等을 各各授與함
一、優勝組는 次回大會까지 優勝旗를保管할責任을負하고 連三年優勝한組에는 永久授與함
一、每組의選手는 二名으로定하며 選手權은一組에限함
一、參加申請한選手는 抽籤發表後에는 絕對變動함을 不許함
一、審判은 釜山庭球審判協會에一任함
一、本大會規定及審判의 命令을守치안커나 大會의秩序及名譽를汚損케하는選手에對하야는退場을命하는事가有함

審判規定

一、審判은 昭和十二年度大阪朝日運動年鑑庭球規定에準함
一、競技用球는 主催者에指定使用함
一、競技順序時間은 審判部에協定키로함
一、審判에對하야 異議가有할時에는 審判員에서決定한言에不服할時는 競技를拋棄한것으로 看做하고 一切棄權한것으로 退場을命함
一、其他事項은 審判部에서臨時協議進行케함

時局講演會盛況

【惠山鎭】지난이십오일오후칠시부터 시내명치회관(明治會館)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전수비대장(栗山守備隊長)(醫谷署長)으로부터 시국의중대성과 그대응책을 설파하야수백청중에게 시국인식을강조하엿다

地方人事

▲韓壽奎氏(前永山公普校訓導)古邑面西部里簡易學校轉勤人事次本報白日支局來訪
▲亞鍋又氏(朝鮮商船株式會社長)就任人事次 本報釜山支局來訪
▲尹太浩氏(同常務取締役)同上
▲韓錫命氏(同庶務課長)同上
▲三浦西方藏氏(宜川郵便局長)新任人事次本報宜川支局來訪
▲嶋竹一郞氏(前宜川郵便局長)退官人事次同上
▲秋山房治郞氏(殷栗郵便局長)新任人事次本報殷栗支局來訪
▲宋榮杜氏(鎭南浦府得信學校敎員)敎務로 出張中 本報孫橋支局來訪

三千浦民國防熱 慰問金等遝至

【三千浦】삼천포읍에서도 공립간이보통학교(三千浦簡易學校)에서는 선생 손병서(孫炳瑞)씨가 지난 이십일에동교생도(七十名)에게 금번북지사변에대한 훈화를하엿는바 일동은감격하야 푼푼이모은돈 삼원오십전을 절약하야 지난해수기에 동교생도들이동닙의보리를 비여주고 삭전으로바든돈 일원오십전과 합오원을가지고와서 북지나에서 분투하는 병사들의 위문금으로 보내여달라고 하여서 동교에서는 지난이십일일에 삼천포주재소(三千浦駐在所)에 의뢰하엿는바 동소원들은 어린아동들의 이와가튼적성에 넘치는미거에감격해 마지안는다하며 이어서 지난이십오일에는 삼천포 부인친목회(三千浦婦人親睦會)에서도 위문금으로 각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야 모은돈 삼십이원이십전을 당지주재소에 기탁하엿스며 또 이날 삼천포읍서리(三千浦邑西里)예기(藝妓)김금홍(金錦紅)외 눈물로어든돈이나마 우리들의 정성과성의로서 보내는돈이니 군인들의 위문금으로 보내여달라고 기탁하엿는바 일반사회에서는 이들의 미거에 감격해마지안는다고한다

宜川庭球大會盛況

【宜川】宜川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二回 全朝鮮庭球大會는 豫定과가티 지난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明信學校「코ー트」에서 開催하엿는데 參加團體는 全部九個團體로 熱烈한 接戰끄테 最後에는 全信學對明信團隊의 對戰케되여 戰勢는 全信學隊에게 不利하야 明信團隊의 優勝旗를 獲得하엿다한다

長篇小說 어머니

李箕永 作
鄭玄雄 畵
【109】

第二、母性篇

七、학우(學友)(二)

덕근이는 옥영이의 뒤를 따러가면서 속으로는 갓다가 바로 드라오리라고 작정하엿나。

그는 옥영이가 인목범절로 보아서도 넝넉한 집안인줄을 그전부터 짐작할수잇섯다。그만큼 그는 더욱 그런동무의 집을차저가는것이 찐덥지안혼 생각을 내게하엿다。하긴 옥영이가 조금도 잇는사람의 티를하지는안치마는 그래도 펴차간 생활의 간격은 은연중 남모르는 소격이 잇게하엿다。

옥영은 덕근이를 다리고 가는것이 다시업시 깃벗다。그는 이날 모임에잇서서도 누구보다 덕근이를 탐탁히아럿다。

잇는집안에서 아무 부자유가 업시 커난 옥영은 마치 쪽고든 대나무와가티 성격에 구김살이 잡히지안헛다 그만큼 그는언제나 기분이 명랑하고상냥한편이엿스나 그반면에 또한서울사람의 경솔한 구석이 업지안헛다。

옥영이가 사는집은 과연 큰집이엿다。그는 부친이 이따금와서 잠간씩 쓰는 사랑방을자기가 거처하고 잇섯다。

큰대문 엽으로 부른 일각문을 열고드러가자 옥영은 덕근이를 안내하엿다。

두간통의 마루가기짜로 붓고 압호로는 유리창문을 해달엇나。그속에 네모가 반듯한 그리적지안흔 방이 도배장판을 깨끗이하고 들어안젓다。

『사ㅡ올리 오라구』

옥영은 유쾌한 기분으로 방안에 드러서며 보료를 깔려노흔 아랫목으로 손님을 권한다。

덕근이는 모자를 쓴채、창문여프로 노흔 책상아프로 기대여안젓다。

옥영은 외투와 모자를 벗어걸고나서 덕근이와 마주안지며

『벌서 오정이 갓가웟네!』

하고 벽에걸린괘종을처다본다。

『이애들이 왜 안올까? 오정안에 온다더니……』

『오늘 손님이 만히 오나?』

덕근이가 아래덥을 만지며 뭇는다。그는 유리문을 해다른책장안으로 내비치는 책들을 드려다보고 잇섯다。그것은 대개 주인이 배우는 교과서와 참고서와 또는 사진첩이엿다。

『아니 동무들을 몃사람 오란것뿐이야—안존남은 더러잇겟지만—』

옥영은 이러케 대구를 하자마자、얼쫌을 안부통으로 도리키며

『어멈!』

하고 큰소리를 친다。두어번 연거퍼 질러도 안에서 떠드는 소리에 그는 줄처럼 아러듯지 못하다가 여러번 부르는바람에 겨우 아러듯고 어멈이 비로소 나와서 방문을 여러본다。

『네?』

『누구 손님오시지 안헛서?』

『아니요!』

『학생손님두?』

『네! 아직 아무도 안오셧서요!』

어멈은 공손한 목소리를 끄내며 눈으로는 덕근이를 유심히 흘려본다。

『응! 그럼 고만두고 물한그릇 떠와요—그리고 미구에 손님들이 오실테니 뭐 잇는대로 내오라구! 잇는대로 끌고루 응! 마님께 그러케 엿주어요!』

『네!』

어멈은 빙그레 우스며 맹랑한 대답을하고 드러간다。

덕근이는 옥영이가 늠수그레한 어멈에게 하말을 거침업시하는것이 이상하게 보이엇다。그도 어렷슬적에는 시골집에서 양반의 행세를 햇든지 모르나 읍내로 이사를 가서 예배당에를 다닌 뒤로는 한번도 그런용어를 쓰는것을 보지못햇나。목사는 종치는 사람을 보고도 말로만은 하우를 하지안헛든가? 그래 그는 어린애가 어른을보고 반말을하는것이 어쩐지 불쾌한 생각이 드러갓다。

뒤미처 어멈은 광채가 나는 놋대접에 쟁반을 밧처서 숭녕한그릇을 떠다노흐며

『도련님! 마님께서 잠간좀드러오시래요!』

『왜?』

하고 대답을 기다린다。

『모르겟서요!』

『아럿서!』

옥영이는 먼저 드러가라는눈치를 보이는바람에 어멈은 문을다쳣다。

『물안먹을나다?』

『아니』

옥영은 물을먹고나서、

『그럼 내 잠간 단녀 나오게! 안젓스라구!』

『그래!』

덕근이는 책상위에 언진 교과서 한권을 펴노코 드려다보며 대답한다。

옥영이가 박그로 나간후에덕근이는 무료히 혼저 안젓는데조꼼후에 방문이다시 펄적 열리며 어멈은 산대에 바친커피차 한잔과 각사탕을 담은 유리합과 아울려서、사시등속을 찻반에 바처서 덕근아프로 갓다놋는다。

長淵
全朝鮮水泳講習會
▲時日 七月二十八日로向一週間
▲場所 長淵九味浦浴場에서
◇主催 長淵松川體育協會
◇後援 朝鮮日報長淵支局

今夜 卅一日
午後八時부터
平壤新公會堂特設링
東京留學生軍
全平壤軍
對抗拳鬪戰
◇主催 奬武會拳鬪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關西體育會